

‘메르스 공포’에 지역경제 휘청

소비심리 위축 유통매장 발길 줄고 병원 등 다중시설 이용객 ‘뚝’
광주·전남 70여 학교 수학여행 연기 ... 지역축제도 취소 잇따라

광주·전남지역 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는 지역민이 급증하고, 병원이나 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갈수록 방문객이 줄어 울상이다.

시·군은 지역축제를 취소 또는 축소하거나 해외 출장·방문을 자제하고 있으며, 학교는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을 취소·연기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3·4·14면〉

4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70여개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30여개 교가 이 대열에 동참하면서 수치가 크게 늘었다. 정부의 초기 대책이 실패하고, 추축성 괴담까지 돌면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보성 모 중학교 등 4개 학교가 서울·경기 지역으로 가려던 수학여행을 전면 취소했다. 목포의 모 초교 등 26개 학교도 에버랜드와 잠센터 방문 일정이 포함된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광주지역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등 모두 8개 학교가 수학여행을 취소했다.

메르스 현황 (전국·4일 20시 현재)

확진 환자	35명
사망자	3명
3차 감염자	5명
격리 대상자	1667명
휴교 유치원·학교	916개교

여름 성수를 앞두고 있던 지역유통업체는 ‘메르스 공포’가 지역민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대부분 유통매장들이 이번 주 들어 고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2일간 구내 고객이 전주에 비해 4.8%, 롯데백화점도 2.9% 감소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직접 매장을 찾는 손님보다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데 메르스 때문에 매출 부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의심환자 1명이 격리돼 있는 전남대병원 등 종합병원을 찾는 이들이 진료를 연기하거나 동네병원을 찾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에는 메르스 의심환자 4명이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막는 음압시설에 격리돼 있다가 퇴원했으나 4일 오후 늦게 20대 여성 의심환자 1명이 다시 격리조치됐다.

예정된 지역축제도 취소 또는 축소됐다. 신안군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5일부터 4일간 지도읍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신안방어랑 농수산물 장터축제’를 취소했다. 또 영광군은 영광방성포만오제(6월 18일~21일)를 개최하되 외부 초청인사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도의회이나 단체장은 외국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마스크 쓴 어르신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4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메르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앉아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방세 안 올리면 교부금 삭감” 지자체, 정부 압박에 인상 추진

광주시, 4500원→1만원으로
“우회적인 증세 아니냐” 논란

정부의 압박으로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주민세 인상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주민세가 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데도, 이를 감행함에 따라 ‘우회적인 증세’가 아니냐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세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교부금(보통 교부세)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데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부적으로 현재 45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안이 현실화할 경우 광주시는 지난해 21억원에서 24억원이 늘어난 총 45억원의 주민세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가 주민세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수차례에 걸쳐 주민세를 안 올리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는 보통교부세를 축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 자치단체의 (인상 여부 등)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이미 합평·장성·담양이 4000~5000원인 주민세를 7000원으로 올렸으며, 영광군은 주민세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영광군은 지난 1일 군의회에 현재 5000원인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영광군 군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행자부는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은 올해 7000원까지, 50만명 이상은 1만원으로 올리도록 인상폭을 정해 놓고 있다. 내년에는 모든 자치단체가 1만원의 주민세를 받도록 했다. 이 같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는 부족 징수액의 최대 2배까지 교부금을 깎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주민세 인상을 거부하면 3억원 안팎의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영광군 한 주민은 “사회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과정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치단체를 압박해 주민에게서 올리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예산부족 타령 좀 그만하고, 서민의 주머니를 털 생각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 좀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시·군·구세인 주민세 개인군 등분을 인상했거나 인상안을 입법예고 또는 의회에 제출한 지자체는 50곳이며, 이미 주민세를 인상한 곳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전서 숨진 80대... 메르스 3차감염 첫 사망

광주·전남 의심환자 7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5명 늘어 35명이 됐다. 대전 대현병원에서 사망한 의심 환자 80대 남성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3차 감염자 중 사망한 첫 사례가 됐다. 보건당국은 발생 지역과 병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메르스 환자는 35명이다. 의료진과 3차 감염 환자는 2명씩 늘어 각각 5명이 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환자 모두 병원 내 감염으로 보고 지역사회 전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추가된 환자 중에는 대형병원의 한 의사도 포함됐다. 의심 환자도 분류돼 병원에 격리돼 있다

가 지난 3일 숨진 80대 남성이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또 공공 원사 계급의 남성 1명이 군 병원의 검사에서 메르스 의심판정을 받았다. 격리 관찰자도 1667명으로 303명이 늘었다. 광주와 전남에 주소지를 둔 메르스 의심환자는 모두 7명으로 전남보다 1명이 줄었다. 광주에서는 이날 광주 모 병원에 격리돼

있던 2명이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나 오후 7시께 20대 여자 대학원생이 유사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격리 조치됐으며, 2명은 여전히 자가격리 중이다. 또 이 여자 대학원생과 함께 수업을 받은 학생 12명도 일단 해당 대학내에 임시 격리조치됐다. 전남에서는 전남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병원에 2명이 격리돼 있으며, 2명은 자가 격리돼 있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 유전자 변이 분석결과도 이르면 5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제행사성공은 시민의 힘으로!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우리 함께해요! 스마일 광주 국제시민운동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15. 7. 3 ~ 7. 14

제 6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 '15. 10. 1 ~ 10. 30
2015 국제디자인총회 | '15. 10. 17 ~ 10. 23

제 11회 광주비엔날레 | '16. 9월
2019 세계수영선수대회 | '19. 7 ~ 8월

7대 과제

- 공공장소와 길거리에서 흡연하지 맙시다
- 길거리에 담배꽂이와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 길거리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맙시다
- 함부로 침을 뱉지 맙시다
- 인도에서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지 맙시다
- 끼어들기, 급정거 등 난폭운전을 하지 맙시다
-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9대 과제

-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합시다
- 존댓말과 고운 말을 씁시다
- 길 안내를 친절하게 합시다
- 공공장소에서 통화 예절을 지킵시다
- 내집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꿈시다
- 애완동물 사육 규칙을 지킵시다
- 차량정지선과 교통 신호를 지킵시다
- 뒷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줍시다
- 에스컬레이터는 두줄로 서서 타고, 뛰거나 걷지 맙시다